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당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전북 유망중기 18곳 선정

도, 국순당고창명주 등...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전북도는 '2019년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18개사를 신규 선정했다. 도는 최근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위원장 정무부지사, 위원 14명)를 개최하여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사기진작하기 위하여 2019년도 전북도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했다.

1999년 시작된 오랜 전통의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품경쟁력과 기술개발로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기업들이 지역 강소기업으로 발전하는 다짐대가 되어왔다.

이번 선정기업은 (농)국순당고창명주(주),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엔에스미트, 대왕제지공업(주), 두영기전 주식회사, 미소드림영농조합법인, 신성기계공업사, (유)아리울수산, (유)신정주포장, 주식회사나우리, (주)디에스엔피, (주)리더스산업, (주)명일정공, (주)삼보죽업, (주)신영목재, (주)착한음식, 주식회사삼조아농업회사법인, (주)피앤엘세미, (주)해성테크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기간 5년으로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수여되며 도에서 운영하는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이차보전 2.0%에서 3.0%로 상향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전라북도 선도기업, 도약기업 선정 시 가점 혜택이 있다.

이번 유망중소기업 심사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의평가를 거쳤다.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도내 기업지원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위원들은 면밀한 심사로 최종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도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분야별 지원역할을 논의하였다.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는 "도내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기업들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단계별 지원의 출발점이 되는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어 기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도내기업이 유망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전북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군산경제 살리기' 적극 지원 요청

전북도,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 신산업 예산 반영 건의
신조물량 등 군산조선소 배정 등 시급한 전북 현안도 요청
탄소소재법·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법률 제·개정도

하여 도민의 자존심을 높여나가기 위해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 '전라전통문화관광개발계획' 7억원, '장수기아유적복원정비사업' 24억원,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 5억원 등 반영을 피력했으며, 도로·공항·항만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으로 국내의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2개선식에 조성에 필요한 76억원, '새만금상수도시설' 10.8억원, '새만금뽕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비' 35억원,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확장' 30억원 등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으로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지 2년이 지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도 산업 호재가 없어 힘들게 버티고 있어 신조물량 또는 선박블록이 군산조선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GM 군산공장 활용방안으로 추진중인 전북·군산 상생형일자리모델이 노사민정간의 합의안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어렵게 마련한 희망의 불씨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에 자립화 및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의료대학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위해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했으며, 아울러, 국토부에서 수립 중이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우리도 중점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민선 7기에 전라북도는 경제체질 강화,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 자존식 고취로 도정목표인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을 실현해가고 있다고 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4대 법안 등 전력을 쏟고 있음에도 추진이 더딘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예산심사가 다음주부터는 본격 돌입함에 따라 국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1일부터는 도와 시군과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여 주요사업 각박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부별 심사동향을 신속 대응하고, 23일에는 지역국회의원보좌관, 31일에는 지역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 지휘부는 10월 말부터 상임위원장, 상임위수석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연고국회의원, 예결위원 등 순차적으로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50년 된 노후산단에 청년을 위한 공간 건립

전주시, 산자부 산단 복합문화센터 공모 선정 국비 33억원 확보
전주 제1산단에 복합문화센터 조성 팔복예술공장 등과 시너지
2021년까지 혁신지원센터 기능 추가·초기 창업자 입주공간 구축

50년 된 노후산단에서 청년들이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탈바꿈중인 전주 제1산단 산단에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

전주시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의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복지부의 시책이 집적화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3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1969년 준공돼 올해로 50해제를 맞은 전주 제1산단은 전주시역 6개 산단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입주기업과 근로자수도 단연 가장 많은 전주의 대표 산단이다.

이에 따라 준공시점인 1969년의 희망

을 재현하지는 취지로 '꿈꾸는 도시, 팔복 1969'라는 이름의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 이곳은 산단 근로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편의시설 ▲체육·운동시설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근로자 건강센터 ▲원스톱 기업지원사무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또 이곳이 복합문화센터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추가 공모사업 도전을 통해 산단 청년근로자들과 청년창업가 등이 꿈을 키우고 실현시킬 수 있는 거점복합센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오는 2021년까지 혁

신지원센터 기능을 추가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입주공간인 'POST-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거점센터가 완공되면 대한민국 문화재생 우수사례인 팔복예술공장, 현재 건축 중인 행복주택·컨벤션센터 등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노후산단인 전주 제1산단이 청년들의 꿈과 신산업이 모이는 곳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전주제1산단이 지난 50년간 전주를 먹여살려왔던 것처럼 어떤 산업 위기에든 흔들리지 않는 경제 자생도시 전주를 만들 밑거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병구 시 중소기업과장은 "일본수출규제를 통해 제조업의 자생력이 대두되는 가운데 산업단지의 힘을 키우고, 유능한 인재가 모이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국화꽃 향기로 만나는 가을...

제9회 부안 가을 愛 국화빛축제

2019. 10. 25~11. 3 (10일간)
부안군 예술회관 앞마당

개막식 2019. 10. 26.(토) 18:00

주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 국화울타리